

제130회 정기이사회 회의록

☐ 일 시 : 2018. 11. 28.(수) 11:00~13:00

☐ 장 소 : 달개비(서울시 중구 소재)

☐ 참 석 자 : 이사 8명, 감사 1명

○ 이 사 :

○ 감 사 :

☐ 업무보고

○ 2018년 주요사업 추진실적

☐ 심의안건

- [제1안건] 2019년도 사업계획(안)
- [제2안건] 2019년도 수입·지출예산(안)
- [제3안건] 근로자이사 선임(안)
- [제4안건] 2019년도 상근임원(원장) 연봉결정(안)
- [제5안건] 복무규정 일부개정(안)
- [제6안건] 여비지급규정 일부개정(안)

☐ 회의록 내용

○ : 안녕하십니까? 서울연구원

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이사회에 참석하여 주신 이사장님과 이사님, 감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

하시고,

이사님은 서울시 긴급회의로 참석하지 못

대리 참석하셨습니다.

이사님과 이사님께서서는 외부 회의로 조금 늦으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사회 성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적이사 11분 중 8분과 정연순 감사님이 참석하여 정관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성원이 되었습니다.

- :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연구원 제130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안건 심의에 앞서 올해 연구원의 주요사업 추진실적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 올해 주요사업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구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당초에 출연금으로 수행하는 자체연구 175건, 수탁연구 50건을 목표로 했는데, 현재 수탁연구는 3건 초과, 자체연구는 9건 정도 미달하였습니다만, 12월말까지 초과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체연구 세부내용을 보면 평균 연구기간은 6개월로 전년도와 큰 차이가 없으며, 평균 연구예산은 과제당 20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8% 감소되었는데, 이는 광화문광장과 같은 대형과제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감소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올해 수탁과제, 자체과제 포함해서 박사 1인당 과제 수는 2.9개이며, 평균 연구기간은 6.5개월입니다.

연구기반사업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구과제 현장성 지원강화를 위해 '작은연구 좋은서울' 지원사업과 연구자문위원회, 소통협력위원회를 지속적으로 추진 또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구협력 네트워크 확대를 위해서 서울시 23개 투자출연기관이 참여하는 '서울 싱크탱크 협의체'를 올해 7월 4일에 발족하여 현재 '고령화 사회'를 주제로 정책기획과제 5개를 수행 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내년 5월에 공통 발표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83개 기관과 연구교류 및 협력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추진에 따라서 석사연구원 66명, 연구지원부서 인력 12명 총 78명 인력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바 있습니다.

연구성과 관리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주요 연구성과 홍보 및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그 결과로써 약 4,200건의 언론보도와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정기간행물 6종 155건, 단행본 11권을 발간하였으며, 2018년 서울전환도시 국제컨퍼런스 개최, 우리 연구원 개원 26주년 기념세미나, 정책·기초연구 시민공유를 위한 12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연구성과 공유플랫폼의 기능을 강화하여 연구원 홈페이지 방문자 수가 45만 여명, 간행물 다운로드 26만 건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보고서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편집위원회를 기존 7명에서 8명으로 증원하였고, 연구보고서의 대외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표절검사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9년 연구원 경영혁신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 민선7기가 시작되었으며, 정부는 산하 투자·출연기관의 혁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연구원에서는 내부혁신 전문가 TF를 구성·운영하여 경영혁신 과제를 발굴하였으며, 10월 10일 시장이 주재하는 회의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래 표에 정리되어 있습니다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더 슬기롭게', '더 깊게', '더 쉽게', '더 신나는'을 키워드로 하는 4대 추진전력과 10개의 주요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추진실적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 수고하셨습니다. 주요사업 추진실적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안건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안건은 총 6건으로 내년도 서울연구원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계획(안)과 수입·지출예산(안), 새로운 근로자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근로자이사 선임(안), 2018년도 원장 연봉결정(안), 그리고 연구원 운영과 관련한 복무규정과 여비지급규정 개정(안)이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안건인 2019년도 사업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부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 2019년도 사업계획(안)을 다음과 같이 상정합니다.

2019년에 수행할 사업계획(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써 사업계획(안)은 연구사업계획, 연구기반 사업계획, 연구성과 관리사업계획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연구사업계획(안)으로 총 235개 연구과제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자체연구과제는 135개, 수탁연구과제는 50개입니다. 대표기획과제는 6대 분야 27개 연구과제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분야는 혁신성장·일자리, 돌봄사회, 균형발전·자치분권, 걷고 싶은 도시, 주택·부동산, 남북교류입니다.

연구기반사업 계획(안)입니다.

첫째, 연구발굴경로 다양화를 위해 시의성 높은 연구과제 기획·발굴하고자 합니다.

둘째, 구정현안 지원 컨설턴트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치구 구정연구단 지원을 위한 '구정연구지원센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셋째,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싱크탱크협의체를 통한 공동이슈 및 주요 현안에 대한 협력연구를 확대 추진하고자 합니다.

넷째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서 '서울동향리포트' 발간과 현장 수범사례 조사 기획 및 기초데이터 축적을 위한 사례연구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그 외에 해외 주요 도시연구소와 협력네트워크 지속 강화하고, 외부전문가 및 현장전문가와 소통하는 연구생태계를 형성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성과 관리사업 계획(안)입니다.

IT기반 도시정보 공유플랫폼 구축 및 서비스 개선을 하고, 연구성과 공유·확산을 위한 기획과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과제 원장보고 운영을 내실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활용부서 자문회의에 참여하여 의견수렴을 통해 연구 활용성을 높이고, 연구결과의 쉽고 편한 정보전달을 구축하기 위해 홈페이지 및 간행물을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2019년 사업계획(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 다양성과 규모가 방대합니다. 설명 들으신 사업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나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235개 연구과제 중에서도 6대 분야 27개의 대표기획 과제를 발굴하여 특별히 집중하고자 합니다. 혁신성장·일자리, 돌봄 사회, 균형발전·자치분권, 걷고 싶은 도시, 주택·부동산, 남북교류 분야 인데요, 연구원에서 자체논의를 통해 민선 7기에서 집중적으로 수행해야 할 정책과제 방안을 제안한 바 있으며, 그것을 중심으로 최근에 급격하게 부각된 주택·부동산 문제와 균형발전 문제를 추가적으로 보완해서 6대 분야 27개 과제를 선정한 것입니다.

또 하나 달라지는 점으로 '구정연구센터'를 말씀 드렸는데요, 민선 7기가 시작되면서 각 자치구에서 연구원으로 정책지원 요구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연구원의 시스템이 본청을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매우 제한적으로 구정 정책을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연구 인력을 확보하고, 서울시에서도 일부 지원을 해주고, 연구원이 매개가 되어 구청에 미니 싱크그룹을 구성해서 구정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연구원에 '구정연구지원센터'를 만들어 서로 연계하고 협력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현재 23개 구청이 참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 23개 투자·출연기관이 있는데, 기관별로 중복 연구가 있고 협력해야 하는 사항이 원활하게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SeTTA'를 구성하여 데이터나 연구를 공유하기 위한 플랫폼과 공동연구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이미 발족을 했고요, 일차적으로 고령 사회를 대비한 의료, 주거, 50플러스재단 프로그램과 관련된 연구를 우리 연구원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내용이 연구 사업에 포함 되어 있습니다.

- : 'SeTTA'는 정말 큰 발전적인 변화인 것 같고, 아이디어도 좋고요, 이사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 : 많은 연구를 수행하셨고 성과도 내셨는데, 연구 성과에 대한 평가는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 : 자체과제에 대해서는 서울시 담당자에게 설문지를 보내 활용도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결과를 어떤 유형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현재는 아니더라도 향후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를 묻습니다. 만약에 활용이 보류되거나 내년에 예정되었다면, 다음에 다시 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솔루션포럼'을 개최합니다. 서울시 담당부서와 함께 과제 발굴 단계부터 논의하고, 연구결과가 나오면 서울시에 가서 직접 설명도 하여 서울시에서 인지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 : 수탁연구는 위탁한 곳에서 평가하면 끝나는 것이고, 결국 자체연구의 성과평가가 중요할 텐데요.

○ : 이제까지 대략적인 결과를 보면 70% 정도는 '활용했다', 30% 정도는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등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 : LG 경제연구원의 사례를 살펴봐도 연구원들이 하고 싶어 하는 연구가 있습니다. 전공 관련 연구나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은 연구를 하고 싶어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 연구자들이 하고 싶어 하는 연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좀 이론적인 연구일 수도 있고, 당장 성과평가 하는 것은 어렵지만 중장기적으로 볼 때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이라고 생각됩니다.

연구원 차원의 정치적인 의사결정이 있으면 그런 연구도 일부는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할 것 같고, 또 상당부분은 좀 더 명확하게 공헌도를 측정할 수 있는 종류의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연구원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와 관련하여 어떤 방침이나 기준을 갖고 운영하고 있나요?

○ : 연구과제가 만들어진 과정을 설명 드리면, 보통 내년도 수행할 연구를 연말에 50% 정도 미리 준비하고요, 연중에는 서울시와 연구원이 협의해서 1년 연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연구원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필요한 연구와市에서 내년에 수행 해주었으면 하는 연구를 수합하여 중복된 부분과 연구과제의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체과제의 구성을 보면 기초연구, 정책연구, 현안연구, 수시연구로 크게 4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 기초연구는 우리 연구원에서 연구의 질을 장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기본적으로 해야 할 조사·분석을 수행하는 연구입니다.

그리고 정책연구는 서울시의 필요나 연구원의 판단에 의해서 정책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고요, 현안이나 수시연구는 급하게 필요한 부분에 대한 조사나 대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연구과제의 질 관리를 위해서 과제를 착수할 때와 중간에 보고를 하고 있고요, 보고서를 내기 전에 최종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결과의 활용성에 대해서는 서울시를 통하여 확인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 : 기초연구는 기간이 어느 정도 인가요?

○ : 8개월에서 1년까지 입니다.

○ : 관련해서 생각나는 게 있어 말씀드리겠는데요, 3단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과제를 도출하고, 도출된 과제를 충실하게 수행하고, 결과를 심사평가하여 항상 긴장을 갖고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市도 마찬가지로 기획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업무부서에서 잘 시행해야 하고, 이를 잘 진행되게 자극을 주는 심사평가가 중요한데요, 제일 어려운 부분이 심사평가 인 것 같습니다.

성과의 품질을 담보하는 것이 심사평가 인데, 행정적으로는 제일 취약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또, 본부장님 말씀을 듣고 당장 생각나는 것이 과제를 수행한 다음 관련 부서에 활용도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150개 과제를 수행하고 관련부서의 의견을 들었다면 심사평가가 완료되는 것인지, 150개를 각 각 보았을 때 보지 못하는 큰 부분이 있을 겁니다.

市の 정책을 보더라도 여러 부서가 연계되어 있고 부분의 합이 전체가 아니 듯이 전체를 보는 장치가 별도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연구원의 카운터 파트너는 해당부서만이 아니라 市 전체입니다. 중간의 매개체가 정책보좌관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평가하는 것이 해당 실무부서만이 아니라 조금 더 상위부서가 개입을 해서 해당 부서들이 평가를 의례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도 필요하고, 조금 더 큰 눈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 : 중요하신 말씀입니다. 그런 절차들을 별도로 진행하지는 못했는데, 전체 구성으로 볼 때 적절했는지, 빈틈은 없는지 전체를 봐 주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 : 참 어려운 일인데요, 연구원 규모도 커졌으니 경영진단을 실시 할 때 심사평가의 절차와 기법을 심도 있게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 연구원이 설립 된지 벌써 26년이 되었습니다.

초기에 필요했던 중심 분야의 연구자들과 최근에 필요한 중심 분야의 연구자들과 다른 부분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 : 내년도 사업과 관련해서 언급한다면, SeTTA는 정말 잘 만든 것 같습니다. SeTTA의 기관들이 현장의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 면으로 좋은 것 같습니다.

시정의 조직을 보면, 1부시장과 2부시장에 관할하는 행정과 기술 분야의 영역사이에 시차가 존재합니다. '기술연구원'이 설립된 상황에서 서울연구원이 주로 다루는 영역하고, 2부시장 측에서 주로 다루는 영역하고, 사실은 한눈으로 보고 서로 보완해야 시차 없는 좋은 정책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서울연구원은 1부시장 산하기관이 아니에요, 전체를 봐야 합니다. 이점을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 : 2019년도의 자체연구가 올해 추진실적과 비교해서 목표로 한 것 보다 늘어나 보이는데, 연구예산은 전년대비 감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규직 전환과 관련된 것 같은데, 인건비 부분을 제외하고, 실제 연구사업비 부분은 감소된 것이 없는 건가요?

- : 네, 없습니다. 연구비 자체는 오히려 15억 7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 : 위촉으로 운영할 때 연구비에 포함되어 있던 인건비 30억 원 정도가 정규직 인건비로 편성되면서 차이가 나게 된 것입니다.

- : 항목이 달라진 겁니다. 예전 연구비에 포함되어 있던 인건비가 이제는 정규직 인건비로 편성된 것입니다.

- : 그러면 실제 자체연구에 투입되는 연구원 수는 변화가 없나요?
- : 거의 변화는 없겠지만, 아마 조금 줄어들 겁니다. 정규직이 위촉직 보다 타이트하게 일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 : 연구원에서 정리해 보았는데, 올해 11월 말 기준으로 131명이고, 전년 11월 말은 140명으로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 : 정규직이 되면서 조금 더 열심히 일해라, 이런 구조 같은데요.
- : 위촉직원은 1인 1과제만 했었는데, 정규직이 되면서 1개 이상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 정규직이 되면 1.2개나 2개 이상의 연구를 할 수 있다고 보신 거죠.
- : 연구비가 2억 감소되고 인건비가 늘었지만, 구정연구지원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연구비가 많이 늘었네요.
- : 네, 맞습니다.
- : 대표기회과제 27개 중에 3개 과제가 대기 오염과 관련된 과제라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 : 대표 기획과제를 보면, '여성 독거노인의 사회적 관계망 강화' 연구가 있는데요, 여성 독거노인은 사회적 관계망이 튼튼한데, 남성 독거노인의 사회적 관계망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 : 그 과제는 SeTTA 과제인데요, 여성가족재단에서 여성 노인에 초점을 두고 먼저 제안해서 연구원과 같이 진행하는 과제입니다.
- : SeTTA 참여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이라 여성 독거노인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 : 제 분야가 재정이라서 그런지 과제를 살펴보니 재정관련 과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 : 재정 분야 전문가인 박사님이 퇴직하면서, 재정분야 공채를 2번이나 실시했는데, 책임자가 없어 채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 세 번째 안건이 근로자이사 선임 안건인데, 근로자이사께서 부친의 가업을 이어 받으신다고 퇴사를 하셔서 새로 선임해야 합니다.
- : 요즘 지방소비세 등 세제개편안이 많은데요, 지방세연구원이나 지방행정연구원에서 교부세나 지방세 관련 연구를 하다 보니 서울시 입장이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 연구를 지방세연구원이나 지방행정연구원과 공동연구를 하는 게 어떨까요?
- :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 :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 말씀하신 재정과 연결이 될 것 같은데요, 민선7기와 관련하여 대표 기획과제에 시정의 큰 부분은 포함된 것 같은데, 지역상생 파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 내부적으로는 재정 같은 경우도 지방과의 관계 설정, 청년일자리 등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는데, 기존 연구도 별로 없고, 해외사례도 없어서요, 연구원 내부적으로는 논의되었을 수도 있겠지만, 대표 기획과제가 아니더라도 다른 파트로 연구가 진행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시가 시·도와의 관계를 어떻게 끌어갈지 아직 방향을 못 잡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님이 시도지사협의회 회장 자격도 있으시고 해서 큰 방향과 전략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 :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 중요한 과제일 것 같은데요, 결국은 지방하고의 관계뿐만 아니라 국가와의 관계도 같은 맥락에서 정립해야 합니다. 크게 봐서 하나의 덩어리입니다. 행정환경, 재정환경, 경제환경 속에서 서울의 위치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 : 국가와의 관계는 어느 정도 되어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 우선순위나 과제들을 설정 한 상태입니다. 새로운 분야에 대한 문제입니다.

○ : 첫 번째 안건에 대하여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은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해서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연구원 2019년도 수입·지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부장님 제안 설명 부탁드립니다.

- : 서울연구원 2019년도 사업계획에 따른 수입·지출예산(안)으로 연구사업 계획에 따른 사업비와 연구원의 시설·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고자 함입니다.

올해 서울연구원의 총 수입지출 예산규모는 386억 7600만원이며, 이는 2018년 대비 48억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수입예산의 77%는 서울시 출연금으로 298억 원 입니다. 그리고 수입예산의 23%는 연구원 자체수입으로 88억 원입니다.

연구원 자체수입이 12억 원 줄었지만, 이것은 결산에 따른 기금을 예비비로 편성해서 전환하는 과정으로, 금년 결산에서 잉여금이 발생하면 다시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이 있었습니다.

연구사업비는 전체의 20%를 차지하는 76억 원 입니다. 경영사업비는 전체의 15%를 차지하며, 57억 원 입니다. 인건비는 전체의 49%를 차지하는 190억 원 입니다. 예비비는 1%로 3억 원입니다.

수탁연구비는 15%인 58억 5000만원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18쪽부터 정리되어 있습니다. 참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안건이 이사회 의결을 거치게 되면,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을 하게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 질문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아직 시의회가 진행 중인데 변경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출연금 증감이 있으면, 변경내역을 반영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부기를 달아야 하지 않나요?
- :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 : 절차상으로 보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는 통과하였으나, 예결위원회가 남아 있으니 그 내용을 부기하여 서면의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 19쪽 하단 '구정연구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원장님께서 23개 구청이 참여한다고 하셨는데요, 예산은 15개 구만 반영된 것 같습니다.
- : 실제 선발하고 실행하게 되면, 내년 3월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정도 규모면 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는 가능한 25개 구를 다하고, 부족한 부분은 기금을 활용하라는 권고가 있어서 상황을 보고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 : 인건비가 늘어난 것은 당연한 것 같고, 예비비가 대폭 줄어든 것은 왜 그렇죠?
- : 앞에서 설명 드렸던 잉여금을 기금으로 적립하는 과정에서 예비비로 편성하는 절차 때문에 그렇습니다.

- : 내년 3월 결산을 해서 잉여금이 나오면, 다시 수입으로 편성하게 됩니다.
- : 전체 예산의 절반 조금 못 미치는 정도가 인건비라고 보면 되겠네요?
- : 예산과목으로 분류를 하고 있지만, 연구원 내부적으로는 연구진의 인건비는 연구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전체 연구 사업비가 50%를 넘습니다.
- : 연구진 인건비를 연구비로 본다는 것이죠, 역으로 얘기하면 약 반가량이 연구지원 예산이란 말인데, 연구지원 예산이 많다고 볼 수 있네요.
- : 큰 행사비, 보고서 인쇄비, 연구 성과물 홍보비 등이 연구지원비에 편성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 :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말씀대로 부기를 달아 원안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안건은 근로자이사 선임(안)입니다. 본부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서울연구원 근로자이사 선임(안)을 다음과 같이 상정합니다. 근로자이사의 사임에 따라「서울특별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서울연구원 정관」에 따라 근로자이사를 선출하고, 정관 제23조 제3호에 따라 선임하고자 합니다.

연구원 정관 제23조 3항에 이사의 선임 및 해임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로자이사 선거는 전체 선거인 282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유효 투표수가 226표, 투표율은 80.1%였습니다. 투표결과 이주일 후보가 107표, 장윤희 후보가 64표, 최하림 후보가 55표를 득표하였습니다.

근로자이사는 2배수로 추천하게 되어 있어, 오늘 이사회에서 의결을 해주시면 서울시장이 임명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27쪽에는 근로자이사 선임절차를 정리하였고, 28쪽에는 두 후보자의 주요경력을 정리하였습니다.

○ : 사표를 내면 이사직에서도 면직이 되나요?

○ : 근로자이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 근로자이사 후보가 몇 명이었나요?

○ : 이번에 3명이 출마했습니다.

○ : 그렇게 경쟁이 치열하지는 않았군요.

○ : 나름 선거가 치열했습니다. 박사급에서 나오고, 석사연구원에서도 나오고, 전문직에서도 나왔기 때문에 의미가 있었습니다.

○ : 투표율이 매우 높았네요, 아주 바람직한 현상인 것 같습니다.

- : 후보를 2배수로 추천하나요?
- : 서울시로 2배수 추천합니다.
- : 궁금해서 한 가지만 여쭙 보겠습니다. 장윤희 후보는 이주일 후보에 비해서 연배나 연구경력이 주니어인 것 같은데, 2위까지 득표를 한 어떤 장점이 있나보죠?
- : 비밀투표였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투표했는지 정확한 파악은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 연구원의 구성원 중 석사급 연구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 : 직급별로 한 사람씩 나와서 그런 것 같습니다.
- : 이사회에서 순위를 의결해서 시장님께 추천하나요, 아니면 순위 없이 추천하나요?
- : 순위로 추천합니다.
- : 이사회에서는 특별한 하자가 있는 경우 변경할 수 있는 거죠, 통과만 시키는 게 아니라고요.
- : 결격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서울시에서 확인할 예정입니다.
- : 세 명의 후보가 직종 간 대결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서 좋은 현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 : 지난번에는 박사 두 분이 나와서 경쟁을 했었습니다.
- : 연구원에 석사연구원이 약 130~140명 정도 되는데, 석사연구원들도 상당수 이주일 박사를 투표 했다고 봅니다.
- : 그러니까 그만큼 득표수가 나왔겠죠.
- : 그렇게 우려하실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은 선거를 하면 공약을 내세우는데, 이주일 박사님과 장윤희 연구원의 공약 중에 직원들의 후생복지와 관련된 예산이나 또는 중장기 인력운영과 관련된 사항 등 연구원에 부담을 주는 공약이 있었는지, 이슈가 되는 특별한 사항은 없었나요?
- :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만, 요즘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청사이전과 관련하여 직원들의 의견을 모으고, 진행 과정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다는 내용이 공약에 들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 : 서울시에서 근로자이사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한 까닭은 근로자 이사를 통해 직원복지에 대한 대변인 역할을 하라는 취지라고 봅니다.
- : 네, 맞습니다. 다만, 그런 이슈가 있으면, 예산에 어느 정도 반영 되었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 : 전임 이사이신 이사가님이 이사회에서 날카롭게 지적도 해주셨고, 근로자이사로서 역할을 잘 해주셨는데 아쉽습니다.

- : 근로자이사 선임(안)은 원안대로 의결 하겠습니다.
네 번째 안건으로 2018년도 상근임원인 원장의 연봉결정(안)을 상정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2018년도 상근임원인 원장의 연봉을 다음과 같이 상정합니다.
2018년도 출자출연기관의 경영평가 및 기관장 평가결과 통보에 따라서 상근 임원인 원장 연봉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결과는 92.7점으로 기본연봉을 3%로 인상하도록 통보 받았고, 3% 인상한 연봉(안)입니다.
이사회에서 연봉이 결정이 되면 이사장님과 계약을 하게 되며, 올해 1월부터 소급하게 됩니다.
- : 매년 이렇게 연봉이 결정되니까?
- : 네, 그렇습니다. 만약 기관장 평가결과가 나쁘게 나오면 인상 없이 동결됩니다.
- : 올해 인상해야 될 것을 평가결과에 따라 확정해주고, 소급해주는 방식입니다.
- : S등급이 최고등급이죠, S등급을 받으신 것 축하드립니다.
- : 원장의 연봉은 기본급만 얘기하는 거죠? 구조가 어떻게 되나요?
- : 네, 그렇습니다. 연봉 외로 성과급과 직책수당이 있습니다.

- : 경영평가 결과는 성과급에 기준이 되는 것 아닙니까?
- : 원장님의 경우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연봉 인상율과 성과급 지급률이 결정됩니다.
- : 그러면 성과급에도 영향을 주고 기본연봉에도 영향을 주는 건가요? 직책수당은 경영평가 결과와는 상관이 없는 거죠?
- : 네, 그렇습니다.
- : S등급을 받아서 연봉이 사백만원 올랐으니까, 한 달에 40만원도 안되게 오르는 정도네요.
- : 성과급은 최대 몇 %까지 받을 수 있나요?
- : 최대 275%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까지 받으신 분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없으시면, 본 안건은 원안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안건으로 복무규정 일부개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부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복무규정 일부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상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가 개정됨에 따라 1년 미만 재직 직원 및 육아휴직 후 복직한 직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사항으로 내용을 보시면 두 가지입니다.

먼저 1년 미만 재직 직원의 연차휴가 보장입니다.

지금까지는 1년 미만 재직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되면, 다음 해 연차휴가 일수에서 차감하였습시다만, 이제부터는 입사 년에도 월 단위로 연차휴가를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육아휴직 후 복직한 직원의 연차휴가 보장입니다.

현행 육아휴직을 갔다 온 직원은 다음 해에 연차휴가가 없었는데, 육아 휴직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고 복직했을 때 연차휴가를 부여는 것으로 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 : 현행 규정을 보면 '휴가를 미리 사용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일수에서 이를 공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연도에 공제한다는 내용이 없는데, 왜 다음연도에서 공제하는 거죠? 각 년도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되어있는 것 같은데요.

○ : 조항을 이렇게 개정할 필요가 있나요? 1년 미만이나 1년 이상이나 똑같아 진 것 아닌가요?

○ : 다른 조항에 1년 이상 재직하면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연차휴가를 주기 위해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 : 그러면, 1년 미만과 1년 이상이 차이가 있나요?

○ : 연차휴가 일수가 달라집니다. 1년 미만일 경우 10월 달에 입사하면 3일이 발생하고, 5월 달에 입사하면 7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1년 이상은 15일 발생합니다. 1년 미만과 1년 이상에 따라 연차 일수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각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 : 1년 이상 재직하면 12일이 아니고 좀 더 늘어납니다.
- : 그렇다면 각 각 규정되어 있어야 맞는 것 같습니다.
- : 「근로기준법」에 따라 육아휴직은 규정으로 보장되게 되어 있는데, 남자 직원의 경우 군대휴직도 보장해야 하지 않나요? 군대를 입대하기 전 연구원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지는 않겠지만, 군대휴직의 경우 의무적으로 가야하는 거니까요.
- :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네요.
- : 그런 사례가 없어서 별도로 규정화 하지는 않았습니니다.
- : 사례가 없어서 별도로 검토하지 않았지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 배우자 휴직도 동일하게 운영하나요?
- : 남자 직원도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 :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복무규정 일부개정(안)은 원안의결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비지급규정 일부개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부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 주시죠.
- : 서울연구원 여비지급규정 일부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성정합니다.

연구원 여비지급규정의 일비 감액대상을 「공무원 여비규정」과 동일하게 개정을 하여 일비 지급기준을 명확하게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공무원 여비규정」 제16조의 일비·숙박비·식비의 지급규정에 따르면 공무원 공용차량 또는 공용차량에 준하는 별도의 차량을 이용하거나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여행일에 대하여 일비의 2분의 1만 지급하도록 되어있고, 이 경우에 '자가용 차량'은 감액대상이 아니라 전액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연구원 규정에는 '자가용 차량'에 대해서도 2분의 1만 지급하게 규정 되어있어 「공무원 여비규정」에 맞춰서 감액해야 하는 차량에서 '자가용 차량'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 : 지금 일비가 얼마인가요?

○ : 2만원입니다.

○ : 그동안 만원만 주셨던 거네요.

○ : 네, 그렇습니다.

○ : 자가용 이용자에게 만원만 줬는데, 자가용 이용 시 2만원을 준다는 내용입니다.

○ : 이의가 없으시면, 이 안건도 원안대로 의결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이사회에 참석하여주신 이사님들과 감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연구원 관계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연구원 제130회 정기이사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8. . .

이 사 장

이 사

이 사

이 사

이 사

이 사

이 사

이 사

감 사